

골프 & 스포츠

■ 콤팩트 뉴스



인천 전자랜드 신기성(오른쪽)과 고려대 안암병원 김창덕 원장이 19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나란히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자랜드 농구단

신기성 농구교실-안암병원 업무협약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가드 신기성이 운영하는 신기성 농구교실과 고려대 안암병원이 19일 업무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신기성 농구교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장 발육 및 부상 예방에 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며, 농구교실 회원들은 고대 안암병원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KT&G, 안양소년원에 농구코트 기증

프로농구 KT&G가 24일 오후 3시 안양소년원에 농구 코트를 기증한다. KT&G는 6월 법무부 소년보호교육기관인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와 자매결연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소년원 내에 정규 규격의 야외 코트 조성공사를 해왔다.

내일 전세계 클랫 이마트배 3on3 대회

여자프로농구 전세계가 21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부천 전세계 클랫 이마트배 3on3 농구대회를 연다. 연고지역 내 중등부와 고등부 각 16팀씩, 총 32팀이 참가하며 중등부 경기에는 여성농구동호회 2팀도 출전한다. 우승팀에 50만원, 준우승팀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FC서울 이승렬 내일 홈팬에 티셔츠 선물

FC서울 이승렬이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FC와의 홈경기에 팬들에게 티셔츠를 선물한다. 이승렬은 남아공월드컵 때 팬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자비를 들여 만든 티셔츠 100벌을 하프타임 추첨을 통해 팬들에게 나눠 준다.

프로축구연맹, 충북에 상무팀 유치 제안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충북도에 상무팀 유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연맹은 올해 광주시와 연고 계약이 종료되는 상무팀 유치 제안을 최근 충북도에 보냈다. 연맹은 제안서에서 유치 조건으로 3년 내 충북연고 구단 창단,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 설립 등을 제시했다.

■ 티잉 그라운드

투어스테이지 비비드 옐로우 드라이버

투어스테이지를 수입·판매하는 (주)석교상사에서 한정판 모델 ViQ 드라이버 비비드 옐로우(VIVID YELLOW)를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1,000 개 한정수량으로 제작됐다. 국내에는 250개만 수입됐다. 헤드 크라운 부분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비비드 옐로우 컬러의 타깃 아이를 그려 넣어 스윙시 안정감을 주고 골퍼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핑골프 G15 하이브리드 호핑

핑골프(www.pinggolfer.com)의 2010 신제품 G15 하이브리드가 골퍼클럽 평가 사이트 골프스파이의 2010 상반기 골퍼클럽 평가조사에서 하이브리드 부분 1위를 차지했다. G15 하이브리드는 전통적인 아이언의 무게 배치에 근접하게 디자인 하면서 클럽 토크에 극단적으로 용량이 큰 웨이트 패드를 장착해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켰다. 볼을 보다 쉽게 멀리 보낼 수 있다. 핑사에서 무료 피팅 뒤 구매할 수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19일(한국시간) 열린 2010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 200m에서 함께 물살을 가르고 있다. (큰 사진) '마린보이' 박태환(왼쪽)이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2010 팬퍼시픽수영선수권 남자자유형 200m 시상식이 끝난 뒤 1위 라이언 로치트(가운데), 3위 피터 밴더 카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어바인(미 캘리포니아주) | AFP연합뉴스

# 박태환 200m 재기...1500m 퇴보

점성 스페셜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200m 2위 마린보이 장기 '막판 스피트'는 실종 1500m 8위...장린보다 15초나 뒤져 떨어진 파워·지구력 동시 보완 숙제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박태환이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모의고사에서 종목별 회비가 엇갈렸다.

●재기 가능성 200m...막판 스피트 보완과제로

박태환(21·단국대)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윌리엄 울버 주니어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10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 200m에서 1분46초27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1위는 라이언 로치트(미국·1분45초30), 박태환의 기록은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5·미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건 2008 베이징올림픽 결선(1분44초85·아시아기록) 이후 최고다. 이 때 세운 개인 최고기록보다는 1.42초 뒤졌지만, 2009로마세계 선수권대회(1분46초53)보다는 0.26초 빨랐다. 일단 자유형200m에서는 '희망을 봤다'는 분위

기다. 스포츠동아 이동운(대한수영연맹총무이사) 해설위원은 "일단 정해진 훈련량을 잘 소화했다. 기록회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박태환 특유의 막판 스피트 실종. 이번 대회 자유형200m에서 박태환은 초반100m를 51초46만에 1위로 돌파했다. 베이징올림픽 당시(51초54)보다 더 빠른 페이스. 하지만 이후 100~150m구간과 150~200m 구간에서 각각 27초25, 27초56으로 힘이 떨어졌다. 베이징올림픽 때는 두 구간 기록이 각각 27초14, 26초17이었다.

체육과학연구원(KISS) 송홍선(박태환특별강좌 위원회위원) 박사는 막판스피트에 대해 "지구력이 60~70%, 젖산내성(운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 피로를 이기는 능력)이 30~40% 정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컨디션이 최상이었던 시점(2008베이징 올림픽)과 직접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워와 지구력의 동시보완이 과제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하다. 이 해설위원은 "박태환이 바로 뒤에 1500m에 출전했기 때문에 체력안배의 차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추가했다.

●퇴보 후퇴한 1500m...쉽지 않은 지구력 회복

하지만 이어 열린 남자자유형 1500m에서는 15분13초91로 터치패드를 찍어 25명의 참가선수 중 8위에 머물렀다. 2006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세운 개인최고기록(14분55초03·한국기록)에 한참 뒤졌을 뿐 아니라, 2009로마세계 선수권(15분00초87), 2008베이징올림픽(15분

05초55)에도 못 미쳤다. 1위는 14분49초47을 기록한 라이언 코크레인(22·캐나다). 아시아권 선수로는 남자자유형1500m 아시아기록(14분45초84) 보유자 장린(23·중국)이 3위(14분58초90)에 올랐다.

물론 박태환의 저조한 기록에는 200m레이스 이후 1500m에 출전하는 등 무리한 경기일정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맞설 '라이벌' 장린에게 무려 15초 이상이나 뒤진 점은 우려스럽다.

수영인들은 "1500m 훈련을 하면 400m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입을 모은다. 지구력은 모든 중장거리의 기본소양이기 때문. 하지만 1500m는 수영최장거리로, 가장 고된 훈련이 수반된다. 생리학적으로 남자선수의 경우 이미 만 15~16세면, 지구력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에는 훈련량으로 지구력을 유지할 뿐, 특별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 번 떨어진 지구력을 채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박태환이 "1500m 아시아기록은 꼭 탈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1500m의 부진은 부활을 위해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수영계 일각에서는 벌써 "200m와 달리 1500m는 아시안게임에서 힘들지 않겠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태환은 21일(한국시간) 주종목인 남자자유형 400m에 출전하며 이번대회를 마무리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서희경이 19일 제주 서귀포시 더글래스 골프장에서 열린 넵스 마스터피스 1라운드에서 공동선두로 나섰다. 3번홀에서 아이언 샷으로 그린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 | 연합뉴스

## 서희경 상금권 조준

넵스 마스터피스대회 첫날 유소연·윤채영과 공동선두

서희경이 본격적인 상금왕 경쟁에 뛰어 들었다.

19일 제주도 더글래스 골프&리조트(파72·6402야드)에서 열린 '넵스 마스터피스 2010'(총상금 6억원, 우승상금 1억2000만원) 1라운드에서 서희경(24·하이트)은 유소연(21·하이마트), 윤채영(23·LG) 등과 함께 공동 1위로 나서며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1번홀(파4)부터 버디를 잡아낸 서희경은 전반에만 3타를 줄인 뒤, 후반에도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더 줄여 6언더파 66타를 치며 지난해 골프대상 수상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서희경은 올 시즌 LPGA 투어를 병행한 탓에 아직 국내대회에서 우승은 없지만, 7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1번 포함에 톱 10에 4차례 진입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현재 상금랭킹은 11위(1억3600만원)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단숨에 상금랭킹 톱5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컨디션도 좋다. 시즌 초에 비해 거리가 줄어 예전의 경기 감각을 찾았다. 해외 투어와 병행하면서 생활 리듬 등 여러 가지를 잃은 것도 상반기 부진의 원인이었다. 실수를 줄여 노보기 플레이를 목표로 하겠다. 빨리 첫 우승을 하고 싶다"고 서희경은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필드와 싱크로율 100%...스크린골프의 진화

잔디까지도 사실상...필드 성적과 일치 스키장서도 골프...이동체험관도 인기

스크린골프에서 게임도 하고 레슨도 받는다? 골프의 새로운 문화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온 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 골프)가 3D 그래픽과 업그레이드 된 성능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006년부터 본격 등장한 스크린골프는 최근 몇 년간 불황을 모르고 달려왔다. 선두 골퍼들은 스크린골프 업계 최초로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세븐번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스크린골프를 경험한 인구만 100만 명에 이른다. 제조와 유통, 소비 등을 합한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골퍼클럽과 볼, 기타 용품 등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

2010년 스크린골프는 더 큰 영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4~5년간 성행하던 스크린골프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1차 업그레이드 시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스크린골프가 단순한 재미 위주였다면, 이제는 재미에 실제 골프와 더욱 닮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실제 골프와 차별이 없어져 스크린골프가 단순한 시뮬레이터 골프게임이라는 말은 이제 옛 말이 됐다.



골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스크린골프가 신기술과 특색 있는 아이템을 접목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필드 느낌을 그대로 살린 세븐번디 스크린골프를 즐기는 골퍼들. 사진제공 | 세븐번디

해외 시장 진출도 스크린골프의 신 속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를 이루면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벌어지는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8일에는 3D 스크린골프로 잘 알려진 골퍼마스터즈가 중국 청도 보통성시 관광 백화점 1층을 모두 스크린골프로 채웠다. 이 회사가 출시한 3D 스크린골프는 공의 움직임은 물론 잔디와 나무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해 실제 필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을 그대로 맞출 수 있다.

세븐번디는 최근 100만 분의 1초까지 잡아내는 초고속 카메라를 장착한 3세대 스크린골프를 선보였다. 볼의 날아가는 속도와 탄도, 방향, 스핀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오차 없이 볼의 진행 방향을 스크린골프에서 재현한다. 특히 이 회사 제품은 레이저와 적외선을 이용한 방식을 탈피하면서 좁은 실내 공간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도 설치, 이용할 수 있다.

세븐번디 임상훈 대표는 "기존 스크린골프의 단점은 오락성만 높이다 보니 실제 필드에서의 성적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3세대 스크린골프는 필드와 스크린골프의 타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스크린골프를 놀이 문화로 만든 골퍼들은 움직이는 골프방을 선보였다. 일반 골퍼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 체험관을 제작해 골퍼연습장, 프로골프대회장, 스키장, 대형 빌딩 앞 등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골퍼들은 또 광화문, 명동, 시청, 동대문, 한강 등을 배경으로 한 가상도시 골프를 선보여 골퍼의 색다른 재미까지 더했다.

X-골프에서는 스크린골프게임과 함께 레슨을 접목한 시스템을 선보이며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최근 미국 내 5개의 세일즈랩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 원윤정 프로데뷔 첫승

KLPGA 점프투어 7차전 9언더파

원윤정(25·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그랜드 점프투어 7차전에서 프로 데뷔 6년 만에 첫 우승했다.

원윤정은 충북 청원군 그랜드 골프장(파72·6317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합계 9언더파 135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600만원을 보태 상금랭킹 4위에서 1위로 도약했다.

공동 선두 그룹에 1타 뒤진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원윤정은 전반 9홀에서 2타를 줄인 뒤 후반 13번홀 버디에 이어, 15~17번홀 연속 버디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김해니(18)가 1타 뒤진 2위(8언더파 136타), 김효진(21)은 7언더파 137타로 3위에 올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